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박 성 미(동국대 석사과정) · 전 미 경(동국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초기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에 따른 문제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으며, 연구의 자료는 초 6, 중 1, 중 2 청소년 2,844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 일부로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부모애착, 친구애착, 문제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변인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경우 온정성과 의사소통, 친구애착의 경우는 친구 애정과 친구 상호작용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신체적 공격성, 내현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자살충동으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Crinbach's α 값,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CALIS program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모든 학년에서 부모애착은 친구애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형성도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모두 부모애착은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부모애착이 높으면 문제행동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친구애착은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중학교 2학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친구애착이 높으면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반면 중학교 2학년에서는 친구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문제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은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친구애착이 높아지고,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중학교 2학년은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동조성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사춘기의 최고절정을 달하여 무엇보다도 친구애정과 친구 상호작용이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늘어나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만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줄어들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대되지만, 적어도 본 연구결과의 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 경우 부모애착은 자녀의 발달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중심적인 가족생활을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애정을 쏟는다. 밀착된 경계의 부모자녀관계를 가진 자녀는 과도한 소속감으로 인해 독립적 행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대인관계 능력 등에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이 문제행동에 나타나는 영향은 시기별로 또 성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자녀양육과 학교교육에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